

어둠은 어둠을 미워하지 않는다

Darkness does not hate darkness

마가복음 3:7-22-30

-
22.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23.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24.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25.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26.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27.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2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29.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30.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

1.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신 비범한 일들이나 기적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증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시기한 나머지 그 일들을 왜곡시키거나 비하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으나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왜곡시킨 것입니다(22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거나 비하했던 경험들이 있나요? 솔직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2. 여러분은 ‘마귀에게 미운 감정’이 생겼던 경험이 있나요? 반대로 하나님이나 사람, 가족들에게는 그런 ‘미움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고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3.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요일1:9).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해주시는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29절). 성령을 모독한 죄는 왜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까요?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